

#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최원오\*\*

## 〈목 차〉

1. 문제제기, 그리고 ‘웃음’ 을 바라보는 연구 관점
2. ‘웃음’ 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일반적 견해
3. ‘웃음’ 의 이해(1): 외국 신화에서의 웃음과 그 기능
4. ‘웃음’ 의 이해(2):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과 그 기능
5.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 의 위상
6. 맺음말

## 1. 문제제기, 그리고 ‘웃음’을 바라보는 연구 관점

한 편의 신화는 다수의 신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신화소들은 거의 신화 한 편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소 분석은 신화학 연구의 한 방편이 된다. 이에 의거하여 본 논문은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에 보이는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분석하고, 그 신화적 기능과 위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국문학-현대문학에서건 고전문학에서건-에서 ‘웃음’은 중요한 연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전자와 관련하여 웃음은 미학적, 또는 수사학적 차원에서 다수 연구되었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연구가 없었다. 이러한 대비가 후자에 주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문학이 인간 및 사회의 반영이라고 볼 때, 이 둘은 긴밀한 상관관계의 전제 속에서 탐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문학을 통한, 또는 문학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하여 그 존재론 탐구를 외면한 채 문학 텍스트에 함몰되는 것은 문학연구자를 현실과 자동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학 작품에서 파악되는 웃음,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재론적 차원에서의 웃음’과 그것이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과 어떻게 결부되어 제시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규정할 때, ‘웃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이며, 그 신화적 기능과 위상은 무엇인가를 문학 작품, 구체적으로는 무속신화 <이공본풀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그런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러한 문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전제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웃음에 대한 역사적 탐구의 필요성이다. 웃음과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이라는 상관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파고들 수밖에 없고, 근원에 대한 탐구라는 것은 곧 웃음의 역사적 탐구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웃음에 대한 역사적 탐구의 필요성은 일찍이 블라지미르 브로브가 제기하였고, 그것은 민족생활과의 구체적 연관성에 기초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2)</sup> 민담학자·민족학자라는 그의 연구자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관점의 전제는 구비문학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연구자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록문학에 비해 구비문학이 실제적 삶의 맥락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는 지극히 타당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웃음에 대한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의 논의, 특히 한국문학계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베르그송의 웃음이론은 다분히 ‘추상적 철학체계’의 관점<sup>3)</sup>에 입

\* “이 논문은 2014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1) 다만 인간 구성원의 집합적 개념인 ‘사회’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인 ‘인간’에 초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웃음의 ‘사회적’ 기능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 2) 블라지미르 브로브,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 2010, 316~317면.

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웃음의 근원적이고도 시원적인 지점에 대한 탐색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블라지미르 프로프의 관점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도 블라지미르 프로프처럼 그 연구대상을 구비문학으로 한정하되, 그 중에서도 무속신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신화를 '서사형식의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던 브루스 링컨의 견해<sup>4)</sup>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신화는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집단적 세계관이나 믿음 등의 기원을 여타의 구비서사에 비해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3장에서 고찰하겠지만, 남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에서의 '제한적 웃음'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sup>5)</sup> 문제는 <이공본풀이>를 제외하면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웃음이 소재로 나오는 경우, 또는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무속신화의 전승집단이 '웃음'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우회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회로는 '웃음'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견해 및 외국의 신화에 보이는 '소재로서의 웃음'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제시될 것인데, 이는 본 논문의 핵심적 고찰 대상인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합리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웃음'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일반적 견해

웃음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논의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다. 플라톤은 '무지의 웃음(우스팡스려움)'을 주장하였는데, 이때의 웃음은 자신에 대한

- 
- 3) 베르그송의 웃음이론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블라지미르 프로프의 견해에 의한다. 위의 책, 316면.
  - 4) 브루스 링컨,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 5) 레비-스트로스, 임봉길 옮김, 『신화학 1: 날것과 익힌 것』, 한길사, 2005.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웃음은 무해한 실수나 결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때의 웃음을 유발하는 실수나 결점은 그 어떤 고통을 주거나 감정을 손상하게 하지 않는 무해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웃음이란 횡경막을 통해서 일어나며, 나이와도 상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키케로는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웃음을 논의하였는데, 그는 웃음의 원천이 감각적 저속함과 지나침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감각적 저속함은 ‘비열하고 껄떡치한 음담패설’을 지칭하며, 감각적 지나침은 ‘예의바르고 재기발랄하고 유머가 있는 착상’을 지칭한다. 즉 키케로는 인간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정상적 상태를 초월하는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언어에서 웃음의 근원을 찾았다.<sup>6)</sup> 요약하자면 플라톤에서부터 키케로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고 있는 웃음은 ‘우스꽝스러움’에 다소 근접해 있는 것이며, 웃음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견해, 특히 키케로의 견해는 웃음의 우월이론[비웃음], 웃음의 불일치이론[유머]으로 대표되는 서구 웃음이론의 근간이 되었다.<sup>7)</sup> 그런데 여기서 본 발표와 관련하여 더 따져보고자 하는 게 있다. 바로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서의 웃음에 대한 약간의 시각차인데, 이 시각차는 베르그송의 웃음이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웃음의 우월이론이나 불일치이론에 대한 ‘웃음의 부적응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의 발생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가르강튀아』의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를 거론해 본다. 이 소설의 서문 앞에 <독자에게>라는 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웃는 일이 아니고는 이 책에서/ 따로 배울 것은 없지만/ 그대들의 마음을 초월하게 하는 슬픔을 보고/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낫다./ 웃음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기에.”<sup>8)</sup> 이 시에서 명확하게 파악되듯이, 라블레는 웃음을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았다. 물론 라블레의 이러한

6) 웃음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류종영,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웃음이론」, 『독일어문학』 제23집, 한국독일어학회, 2003.

7) 위의 논문.

8) 프랑수아 라블레, 권국진 옮김, 『가르강튀아』, 도서출판 井, 2002, 7면.

견해는 그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플라톤에서부터 키케로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웃음이론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키케로의 견해가 더 바탕을 두고 있는 견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견해는 정확하게 베르그송의 웃음 이론과 대척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웃음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베르그송의 웃음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중 베르그송의 견해가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대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라블레의 시로 다시 돌아가서 전반적 시상을 음미해 보면, ‘웃음은 인간 고유의 속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는 점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로 웃음을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sup>9)</sup> 말하자면 라블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웃음 이론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이러한 승계자적 자세는 베르그송의 웃음이론을 압도하지 못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대하여 베르그송은 ‘인간은 웃게 하는 동물’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관점은 묘하게도 웃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기독교적 세계관<sup>10)</sup> 및 휴머니즘 사상<sup>11)</sup>과 연계되어 지배적 이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

9) 류종영, 앞의 논문.

10) 이에 대해서는 류종영의 정리를 참고한다. “W. E. Hartmann은 성경에 진술된 웃음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웃음은 의기양양하고, 경멸적이고, 조롱적인 웃음이다. 2. 예수는 한 번도 웃지도 않고 미소도 짓지 않는다. 3. 웃는 사람들은 바보들이거나, 현명하지 못한 자들, 즉 비 신앙인들, 이교도들이다. 4. 이와는 반대로 현명한 사람들, 즉 신앙인들은 기껏해야 약간 미소를 지을 뿐이다. 5. 웃음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곳은 구약 성경에서든지 신약 성경에서든지 단 한 곳도 없다. 6. 비 신앙인들은 비웃음, 조롱,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다. 7. 웃음이 추방된 것은 예수를 통하여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5, 103면.

11) 휴머니즘 사상은 인간의 특성을 ‘로고스’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때문에 휴머니즘 사상은 웃음을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감정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위의 책, 112~114면.

류 사상과 연계되어 있는 베르그송의 웃음이론을 라블레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베르그송은 ‘희극에 의해 특별히 일어나는 웃음’만을 한정적으로 다루었다.<sup>12)</sup> 여기서 ‘희극’은 웃음거리를 말하고, 웃음은 그 웃음거리에 대한 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웃음이 다분히 감정적인 산물이라면, 베르그송의 웃음은 다분히 이성적인(또는 지성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베르그송은 웃음을 ‘삶의 유연성 부족에서 오는 웃음[행위의 웃음거리], 생활 속 방심에서 오는 웃음[상황의 웃음거리, 말투의 웃음거리], 한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웃음[성격에 대한 웃음거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이들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르그송이 주장하고 있는 웃음은 ‘웃음거리에 대한 표시’이자, ‘지성의 산물’이다.<sup>13)</sup> 또한 베르그송은 정신과 물질의 구분을 통해 웃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정신은 환경에 알맞은 행동’과 연계되고, ‘물질은 환경 여하에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행동’과 연계된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장면에 알맞게 행동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특정 장면에 알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즉 정신이 물질화하였을 때에 웃음이 생긴다는 것[부적응반응설]이다.<sup>14)</sup> 이 역시 베르그송이 주장하고자 하는 웃음이 얼마나 이성적이고도 지성적 산물인 것인가를 잘 말해준다.

이상의 정리를 통해서 파악하건대, 웃음을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감정의 산물로 보건, 이성의 산물로 보건 간에 웃음이 인간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상의 이론들이 웃음에 대한 설명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구비문학, 특히 신화에서의 웃음은 이들의 이론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웃음에 대한 설명이나 이론을 정립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정리한, 서구학자

12) 머리말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앙리 베르그송, 김진성 옮김, 『웃음: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중판:1993.

13) 류종렬, 「웃음거리: 웃음의 미학-웃음거리(le comique)의 발생과 의미-」, 『시대와 철학』 제17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43~64면.

14) 김윤옥, 「웃음론」, 『연극학보』 제8집,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1975, 65면.

들의 웃음이론은 이후의 논의를 대비해서 살펴보게 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 3. '웃음'의 이해(1): 외국 신화에서의 웃음과 그 기능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신화적 소재로서의 웃음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sup>15)</sup>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외국신화에서의 '웃음'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동종(同種)의 서사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2장에서의 '웃음론'보다는 한국의 무속신화에 내재되어 있는 '웃음'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합리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신화에서 파악되는 웃음에 대한 논의로는 앞서 소개한, 레비-스트로스와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것이 있다. 레비-스트로스는 남미 원주민의 자료만 대상으로 하였고, 블라디미르 프로프는 러시아 원주민의 자료를 주로 하되, 다른 민족의 자료도 함께 참조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논의는 상호 참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유사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억제된 웃음'(블라디미르 프로프의 용어로는 '웃음의 금지')이라는 금기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레비-스트로스는 "웃음과 그 결과로 빚어지는 운명적인 결과"<sup>16)</sup>, 즉 '웃음으로 인한 죽음'을 지적하는

15) '웃음'에 대한 연구는 전설이나 민담, 또는 야담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재론적 관점에서의 '웃음'에 착목하여 탐색한 것은 아니다. 저서에 한정하여 보면, 이강엽, 『바보이야기, 그 웃음의 참뜻』, 평민사, 1998; 황인덕, 『한국기독교사론』, 태학사, 1999;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서대석, 『한·중 소화의 비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김복순, 『바보 이야기와 웃음: 바보 민담의 웃음시학』, 한국학술정보, 2009; 이강엽, 『바보설화의 웃음과 의미 탐색』, 박이정, 2011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외에 한국문화에서 파악되는 웃음을 고찰한 저서로는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담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유정탄생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한국의 웃음문화』, 소명출판, 2008; 정계민, 『군대유머, 그 유쾌한 웃음과 시선』, 박문사, 2011 등이 있다.

16) 레비-스트로스, 앞의 책, 276면.

한편, 이러한 논의가 결국 “웃음과 다양한 양태의 신체 열림 사이에 관계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해준다.”<sup>17)</sup>고 보았다. 블라디미르 뿌로쁘 역시 ‘웃음의 금지’라는 금기의 위반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모든 금지들은 삶과 죽음의 대립에 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금지들은 죽음에 관한 관념들이 이미 분화되어 있으며 윤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8)</sup>는 설명을 통해 구체화 및 보편화하고 있다. ‘금지된 웃음의 위반=죽음’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 파악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모두 한국의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을 논의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본다.

논의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집중도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블라디미르 뿌로쁘는 ‘웃음의 금지’와는 전혀 상반된 관점에서의 웃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생명을 주는 웃음’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웃음은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웃음의 상반된 기능’에 대한 그의 주장을 잘 보여준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모든 웃음이 멈추고 금지되는 반면 삶의 세계로 들어가면서는 웃음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서 웃음의 금지를 보았다면 삶의 세계에서는 웃음의 성약(成約), 즉 웃음의 강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웃음이 삶과 함께 하는 능력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이어서 블라디미르 뿌로쁘는 이러한 논의를 살해(사냥 포함) 및 장례 의례에까지 확대하여 설명한다. 악명 높은 웃음, 잔인한 웃음, 남의 재액을 기뻐하는 웃음과 동의어로 간주되는 ‘사르디니아 웃음’은 사르디니아의 고대 주민들이 노인들을 살해하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사

17) 위의 책, 284면.

18) 블라디미르 뿌로쁘, 앞의 책, 328면.

19) 위의 책, 329면.



실과 다르다는 게 블라디미르 뿌로뿌의 판단이다. 또한 이집트 유목민들이 고인들을 매장할 때 끊임없이 웃었다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불가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웃음이 삶을 창조하고 출생에 수반되면서 출생을 창조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살해 시의 웃음은 죽음을 새로운 출생으로 변화시키며 살해를 소멸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웃음은 죽음을 출생으로 변화시키는 경건한 행위인 것이다.”<sup>20)</sup>라는 설명은 살해 및 장례의례에서의 웃음을 해명해주기에 적절한, 블라디미르 뿌로뿌 식의 논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신화에서의 웃음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와 블라디미르 뿌로뿌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이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한편, 약간의 분석적 첨언으로써 체계적 정리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자료1: 남미 테레노족의 신화. 땅의 심층부(창자)에서 사람들을 뽑아낸 후, 조물주 오레카주바케(Orekajuvakai)는 이들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이들에게 일렬로 주을 서라고 명령하고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 작은 늑대를 호출했다. 늑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원숭이 짓(웃기는 짓)을 했다. 그는 꼬리를 물고 돌거나 별짓을 닮았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오레카주바케는 작고 붉은 두꺼비를 불렀는데, 그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모든 사람들을 재미있게 했다. 그가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을 따라 세 번째로 통과했을 때, 사람들은 말을 시작하고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sup>21)</sup>

자료2 :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두순족 신화. 한때 토와다콘(Towadakon)만이 이 세상에 홀로 있었다. 토와다콘은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야 했다. “나는 사람들을 만들겠어.” 그가 말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사람들을 만들지? 토와다콘은 나무를 자르고 몸통의 나무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무로 사람을 깎았다. ‘말해.’ 그는 나무인간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처럼

20) 위의 책, 337면.

21) 레비-스트로스, 앞의 책, 281면.

서 있기만 했다. "난 이딴 거 싫어." 토와다콘이 말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나무인간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재료를 물색했다. 토와다콘은 크고 부드러운 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조각했다. "츄츄." 그는 명령했다. 그러나 그것은 돌처럼 서 있기만 했다. "난 이딴 거 싫어" 토와다콘이 말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돌 인간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재료를 물색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땅을 제외하고. 토와다콘은 땅으로 사람을 주조했다. 그가 "말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하지 않았다. 그가 "츄츄."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츄츄지 않았다. 그러나 토와다콘이 "웃어." 라고 하자, 흙으로 만들어진 조각이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웃으면서, 인간이 되었다. 인류의 시작은 웃음과 함께였다.<sup>22)</sup>

자료3 : 남미 토바-필라가족의 신화. 조물주 네다미크(Nedamik)는 최초의 인간들에게 간지럼을 타는 시련을 받도록 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은 사람들은 지상의 동물이나 수중동물로 변화됐는데, 제일 먼저 웃은 사람들의 표범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지상동물로, 두 번째로 웃은 사람들은 물속으로 몸을 피해 표범을 피할 수 있는 동물(물고기)로 변했다. 웃음을 참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표범이 되었거나 또는 표범을 잡는 사냥꾼(인간, 승리자)이 되었다.<sup>23)</sup>

자료4 : 남미 보로로족의 신화. 생명을 건진 대가로 한 인디언이 표범에게 자신의 딸을 제공해야만 했다. 그녀가 어린아이를 분만할 때가 되었고, 사냥을 떠나면서 표범은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웃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얼마 지나서 여인은 커다란 벌레(어떤 판본에는 표범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내는 추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는 그녀의 진지함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인은 웃음을 참았지만 허사였다. 웃음이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러자마자 견디기 힘든 고통에 휩싸인 채 죽고 말았다. 표범은 그의 발톱으로 제왕절개를 하기에 적당한 시간에 돌아왔고, 아내의 시체에서 쌍둥이를 꺼내 그들의 목숨을 건졌다. 이 쌍둥이들은 후에 보코도리 씨족과 이투보레 씨족의 문화창조 영웅이 되었다.<sup>24)</sup>

22) Rodlyn Poignant, *Oceanic Mythology*, Hamlyn, 1967.

23) 레비-스트로스, 앞의 책, 276면.

24) 위의 책, 282면.

자료5 : 태평양 하와이 마우이 섬의 신화. 종족의 조상이 된 괴물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아가리를 열었다. 영웅 마우이는 괴물과 싸워서 이기리라 결심한다. 새들을 동지로 삼은 그는 새들에게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웃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밖으로 나오면서는 웃어야 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마우이가 죽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괴물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우이와 새들은 웃을 벗었다. ...이들이 괴물의 아가리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작은 새가 큰 웃음소리를 낸다. 괴물이 깨어나 마우이를 죽인다. 만일 마우이의 계획이 성공했었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sup>25)</sup>

자료6 : 러시아 야꾸찌야족의 신화. 출산 후 삼일 째가 되던 날 여자들은 산부의 집에서 출산의 여신 이이에흐시뜨를 송별할 준비를 한다. 의례에 따른 연회에서 참석해 있던 여자들 중 한 명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큰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모든 이들의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이는 웃고 있는 이의 임신과 곧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이이에흐시뜨가 그녀를 방문했다'고 말한다.<sup>26)</sup>

자료1과 자료2는 웃음이 언어와 함께 인간 고유의 특징임을 알려준다.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웃음은 '인간/비인간'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웃음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웃음은 '인간으로서의 삶/비인간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된다. 그런데 자료3, 자료4, 자료5는 이것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다. 즉 웃음이 인간의 '삶/죽음'을 구분하는 표지가 되고 있다. 금지된 웃음을 참으면 살게 되고, 참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의 웃음이 '인간으로서의 삶/비인간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주는 표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웃음이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 것은 분명한데, 인간이 비인간적 존재의 특정 계획에 포획될 때(특히 그러

25) 블라지미르 뵘로뵘, 앞의 책, 331면.

26) 위의 책, 333면.

한 존재가 시험을 할 때)가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조물주나 표범 시어머니, 커다란 벌레, 괴물 등은 비인간적 존재로서 웃음을 결여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또는 이들의 영역에 들어가서 웃는다는 것은 그들과는 비동질적 존재, 즉 웃는 존재가 인간임(또는 아직 인간으로서 살아 있음)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비인간적 존재를 향한 인간의 웃음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 비인간적 존재가 제시한 ‘금지의 웃음’ 금기를 위반할 시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웃음은 ‘참을 수 있는 것(참기 쉬운 것)/참을 수 없는 것(또는 참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리조절의 대립항을 구성한다는 것. 한편, 자료6은 웃음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 즉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1과 자료2에서 사람의 삶이 웃음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은 자료6이 자료1과 자료2의 변이형임을 말해준다. 자료6은 인간의 삶이 웃음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지만 ‘내밀한 차이’, 즉 인간의 웃음이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내밀한 차이’는 웃음이 일종의 마력(魔力)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신화에서의 웃음은 ‘인간/비인간’, ‘삶/죽음’ 등을 구분 짓는 경계적(境界的) 기능, ‘참을 수 있는 것(참기 쉬운 것)/참을 수 없는 것(또는 참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리적(生理的) 조절 기능, ‘삶(또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마법적(魔法的) 기능과 결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웃음의 기능이 한국의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웃음’의 이해(2):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과 그 기능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소재로서의 ‘웃음’이 유일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공본풀이>에서이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얻어온 환생꽃으로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웃음을 웃게 만드는 꽃, 싸

움을 하게 만드는 꽃, 살인을 하게 만드는 꽃(수레멜망악심꽃)으로 김장자 일가족을 몰살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꽃 중에서 '웃음을 웃게 하는 꽃' 신화소가 여기서의 논의와 직결된다.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이 느네 어머니 삼대김 받은 물이로다. 느네 어머니 원쉬(怨讐)를 가프 커건 수레멜망악심꽃(滅亡惡心花)을 내여 주커메 느네 어머니 원설 가프곡 도환생꽃(還生花)을 내여 주건 느네 어머니 살려오라. 이 꽃(花)은 웃음웃을 꽃이라. 제인장제침이 가건 「이 내 몸이 오늘날 죽어도 좋수다마는 장제침의 일가방답 삼당웨당(三堂外堂) 다 불러다 주옵소서. 훗말이 있소이다.」 허영 다 못아 오건 웃음웃을 꽃을 허고면 황천(仰天) 웃음이 버러질거메, 그 때랑 싸움싸울 꽃을 노면 삼당 웨당이 싸움을 훗 거여. 매마꽃데 수레멜망악심꽃을 노면 삼당 웨당이 다 죽을 거여. 그 때 장제침(長者家)의 죽은 딸 아기만 살려뒀당 「우리 어멍(母) 죽여단 데꺼분 덜 곶아주민 아니 죽이키여, 허영 죽은 곶을 일러주건 도환생꽃을 노양 어머니 살려오라.』

『어서 걸랑 그럽소서.』

아버님 이르는 낭 악심꽃광 환생꽃을 아전 장제침월 오라시난 죽일팔로 둘러가니 할락궁이 말을 허튀

『제가 죽는 건 소원(所然)이 엇이나 삼당 웨당(三堂外堂)이나 다 불러다 주옵소서. 허실 말이 있소리다.』

『어서 걸랑 그리하라.』

삼당 웨당(三堂外堂) 다 못아드니 웃음웃을 꽃을 노았더니 환천(仰天) 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노았더니 싸움으로 벌어진다. 멜망꽃(滅亡花)을 노았더니 삼당 웨당이 다 죽어간다.<sup>27)</sup>

할락궁이가 김장자 일가족을 몰살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칼이나 활과 같은 살상 가능한 무기를 사용하여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여기서의 꽃은 우리가 실제 관찰 가능한 의미에서의 꽃은 아니고, 일종의 주화(呪花)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웃음을 웃게 만드는 꽃이고, 또 왜 하필이면

2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29~130면.

그 꽃을 필두로 하여 싸움을 하게 만드는 꽃, 살인을 하게 만드는 꽃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인가? 살해가 목적이라면 곧바로 서로를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죽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서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신화에서의 ‘웃음’이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내재하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그것은 바로 웃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주화뿐만 아니라 ‘웃음’ 역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3장의 논의에 기대어 좀 더 추론하자면, 주화보다는 웃음이 김장자 일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근원적 원인이었을 터인데, 그것을 ‘주화’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웃음’을 우리는 ‘죽음’과 ‘원인-결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동의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은 삶/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기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리적 조절 기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할락궁이가 주화로써 아무리 웃게 만들더라도, 김장자 일가족이 인간적 의지로써 참아냈다면 이후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너무나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주술 도구가 동원된 탓에 어떤 식으로건 억제할 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웃으면 안 된다는 금기가 미리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웃음은 ‘금지된 웃음’의 변이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위상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 정확하게는 소재론적 차원에서의 ‘웃음’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거의 희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소성’이 ‘웃음’의 중요성이 낮다는 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웃음’에 대한 신화적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고 <이공본풀이>에만 남아 있다면, 또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더 다양한 논의와 심오

한 인식을 펼칠 수 있다면, ‘소재론적 차원에서의 웃음’이 다수 확인되는가, 소수 확인되는가에 따른 차이가, 본 논문의 논지 전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두 가지 각도, 즉 무속의례에서의 웃음, 그리고 한국의 전설과 민담에서의 웃음을 고려함으로써,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이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5.1. 무속의례에서의 ‘웃음’

‘웃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무속의례 중에 연극적으로 행해지는 무극(巫劇, shamanistic ritual drama)에서다. 다만 ‘소재로서의 웃음’은 아니고, 무당(또는 심방)의 언행이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이때의 웃음은 무속의례라는 제의적 맥락 속에서 유발되는 것이기에, 세속적인 웃음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소위 ‘제의적 웃음(ritual laughter)’, 또는 ‘신성한 웃음(sacred laughter)’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고소리로 따고자. 제주(祭酒) 뒤편이니 굿을 하자. 당반도 메라. 기메도 메라. 굿 오란 보난 신의성방(神房)이 술 도랭 헌민 본주(本主)에선 못들은 책허영 「물?」헌극 떡 도랭헌민 「밥?」헌극 [주인의 흥내를 낸다.] 요 전상이 누게 전상인고? 굿헌젠 허염시메 「노니애기직함 가진 놈」덜아 자지 말앙 일어나라. [주먹을 불쑥 내놓고] 귀오개야 귀오개야, 술 도랭 헌민 「물?」헌는 본주지관 귀오개라.

(小巫) 예. [주인의 귀를 막 우비어내려 한다. 웃음판]

(立巫) [사실] 노누애기(藥指)야, 노누애기야, 헌저 일어난 동서레레 돌아댕기 멍 제물(祭物)하라.

(小巫) [손가락으로 주인을 막 찌른다.]

(立巫) [사실] 키다리야, 키다리(長指)야, 어서 일어난 높은 당반도 메라.

(小巫) [손가락으로 主人을 찌르며 당반 매는 시늉한다.]

(立巫) [사실] ㄹ리치기야 ㄹ리치기야, 제비덜 ㄹ리치멍 기메 꼬으랭 하라.

(小巫) [기매 꽃는 시늉함]<sup>29)</sup>

28)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저서를 참고할 만하다. Victoria Reifler Bricker, *Ritual Humor in Highland Chiap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3.

위의 인용은 <이공맞이> 중 ‘이공이전상법’의 일부이다. 입무와 소무가 짝이 되어 웃음을 유발하는 제의연극적 언행(言行), 특히 그들의 제의적 행동이 청중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입무와 소무는 단순히 청중을 웃기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나쁜 ‘전상’을 내쫓기 위한, 말하자면 지극히 엄숙하게 나쁜 전상을 구축(驅逐)하기 위한 의례를 행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제의를 엄숙한 맥락 속에 구속시키지 않는다. 왈차지껄한 웃음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웃음이 이러한 의례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여기서의 ‘웃음’은 죽음의 원인으로써 기능하기보다는 전상을 구축하는, ‘생산적 웃음’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대부분의 무극에서 확인되고 있다.<sup>30)</sup>

## 5.2. 한국의 전설과 민담에서의 ‘웃음’

한국의 전설과 민담에서는 <돌부처의 피눈물>, <왕이 된 새싹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에서 ‘소재로서의 웃음’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설화에서 ‘웃음’은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단순 소재로써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웃음’이라는 소재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웃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설화에 웃음의 신화적 기능이 잔존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자료1 : <돌부처의 피눈물>

그런데 거 미륵 콧구멍에서 피가 날 거 같으머는 난(亂) 난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거든. 근디 돌로 맨든 놈으 기 생기(生氣)가 있어야 피가 나지, 돌로 맨든 놈으서 피가 날 턱이 뭐 있어.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동네에 노

29) 현용준, 앞의 책, 186~187면.

30) 무속의례의 희극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바이고, 또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되지만, ‘웃음’ 그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 하나가 그 소리를 곧이 듣고서 자꾸 가봐. 매일 가 봐. 매일 한 번씩 가 보는 거야. 하두 직심으로 땡기면 보니까니, 동네 청년덜이 영감은 골려 줄라고 소 잡는 데 가서 소 피를 가져 와서, 그 코이다 발라냈단 말야. 그래가 보니까니 피가 났거든, 하니께 그땐 아들덜 보고 이 얘길 했거든.

"이젠 때가 돌아왔다. 은진미륵 콧구멍에 피 날 것 같으면 난 난다구 그랬는데 이젠 때가 왔으니까니 우리 다 전장(田庄)이구 뭐 다 팔구서 어디루 피난을 가자."

하니까니 아들덜이야 코-웃음을 치면서,

"원 아부진 아니 그걸 믿어요? 아니 그거 아부지가 하두 그럭해 직심스럽게 땡기며 보니까니 아무개 아무개가 아부지를 골릴라고 소 피를 거게다가 갖다 발랐어요." 그러니께,

"그것두 다 안다. 나두 안다. 이젠 때가 됐으니께 그능덜이 그런 맘이 나서 그걸 갖다 발랐지. 나도 돌이서 피가 난 줄은 생각지 안한다. 언제든지 그럭했어. 거게가 피가 날 게지, 돌에서 여떡해 피가 나오것느냐? 함께 이제 때가 됐으께 그능덜이 그럭해 할 생각이 나서 그걸 그럭했으니까, 두 말 말구어서 다 팔구서 어디루 가자." 구

아들덜은 코웃음 치면서 말 안 듣거든.

"아버지가 아마 이젠 망녕기가 있는기라." 구.

이래민서두 아들덜 말 안 듣거든.<sup>31)</sup>

자료2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이덜이 띠 누레 나가더니 오디 안해서 범은 아덜을 얻어 보갔다가 나와서 여기더기 얻어보다가 움물 역에 와서 움물 안을 들다왔다. 움물 안에 있어서 "야덜이 이리 나오나. 날래 나오나" 하멘 소리됐다. 그 아덜이 모양이 우스워서 아덜이 히히 하구 웃었다. 범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무를 테다보구 "너덜 어드렇게 거기 올라가 있네?" 했다. 사내아래 앞집이서 그림 얻어다가 나무에 발르구 올라왔다구 했다.<sup>32)</sup>

자료3 : <왕이 된 새삼이>

그래서, 그 다음엔 그 가마를 놓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마침 황후가 돼 갖고는 에 황후가 되긴 됐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황후가 뭐라고 하는고

31)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49~150면.

32)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 편Ⅱ』 2, 평민사, 1988, 126면.

하니,

"구년지간에는 나라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구년지간은 가만 나두어라. 구년 후에라야, 구년 후에라야 나를 상종해도, 구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내게는 손도 대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상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구년 동안을 그냥 지냈어. 구년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인제 걸인 잔치를 하는 것이여. 거러지 잔치. 거러지 잔치를 이제 하는데 황후가 인제 그 임금에게다가 얘기해 가지고 거러지 잔치를 하는데, 그때에 인제 새새이가 새를 잡아 삼년, 뿔 뛰어서 삼년, 공부해서 삼년, 구년을 공부해가지고 거길 갔어. 새 터러구를 전부 뜯어가지고 그걸 전부 꿰가지고 전부름 의복을 만들었어. 의복을 만들어 전부 쓰고서는 춤을 추고 거길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그 황후가 9년두루, 옷은 것을 보지 못했더니 아 그 새새이가 춤을 추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걸 그리 좋다고 손뼉을 치고 웃는 것이여, 좋다구. 그러니까 임금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걸 내려가설랑에 저걸 입고서 춤을 추게 되면, 임금이 저걸 춤을 춘다고 해서 황후가 더 좋아 할 것이여. 그러니 좀 내려가서 바꿔 입어야 되겠다.' 그래 내려가서 그 의복을 바꿔 입었어.<sup>33)</sup>

자료1에서 노인은 '미륵 콧구멍에서 피가 나면 난리가 난다'는 전설을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마을 청년이나 노인의 아들들은 그 전설을 믿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 여부는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면 '전설을 믿지 않는 자=죽게 됨', 그리고 '전설을 믿는 자=살아나게 됨'이라는 대립 구조를 완성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극명하게 구분시키는 매개체로써 '비웃음'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의 '비웃음'이 명백하게 금기로써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설에 대한 노인의 믿음이 결국 실현되었고, 또 그것을 확증시켜주거라도 하듯이 신인(神人)이 등장하여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을 청년이나 노인의 아들들의 비웃음은 비인간적 영역의 비인간적 존재(여기서는 신적 존재)를 침범하는, 즉 금기의 어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3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문의 여지가 없게도 죽음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자료2에서도 똑같은지만, 약간은 유사한 상황이 확인된다. 만약

33)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27면.

에 나무 위에 올라앉은 남매가 호랑이의 멍청한 행동—우물 속의 남매를 잡으려는 것—에 웃지만 앓았다면 하늘에 줄을 내려달라는 소원을 빌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매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전혀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다가 결국은 지상을 떠나 천상의 해와 달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남매가 '죽어서' 해와 달이 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삶이 종결되고 해와 달과 같은 천체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비인간적 존재인 호랑이를 향한 '웃음'이 남매의 운명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1과 자료2에서의 웃음은 모두 비인간적 존재를 향한 '금지된 웃음'이 죽음(지상에서의 삶의 종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 설화에서의 웃음이 삶/죽음의 경계를 구분 짓는 기능에 다소간 직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에 비해 자료3은 '생산적 웃음'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의 여지없이, 새댁이 아내의 웃음은 그녀가 9년 동안 웃지 않다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 비로소 웃게 되고, 그것은 자신을 약탈한 황제를 몰리치고 남편을 그 자리에 대신 앉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점에서 자료3에서의 웃음은 자료 1, 2에서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 한국의 무속의례에서는 제의연극적 행위를 통한 '생산적 웃음'이 확인되고, 한국의 전설과 민담에서는 '금지된 웃음'과 '생산적 웃음'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같은 '생산적 웃음'이라고 하더라도 무속의례에서는 주술적(呪術的)·구축적(驅逐的)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한국의 민담에서는 정지된 일상적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복구적(復舊的)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것은 갈래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웃음의 성격은 무속의례가 회극적 성격이 농후한 서사라는 것, 전설이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 성격을 추궁하는 서사라는 것, 민담이 인간의 일사상을 흥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서사라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한국의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에서 확인되는 ‘금지된 웃음’과 견주어보면, 비밀상적 영역의 비밀상적 존재에 대한 인간간의 ‘웃음’은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은 주화를 이용한 강요된 웃음을 유발하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적이다. 또한 이처럼 유발된 웃음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외국의 신화에서도 확인되는 바이기에, 한국적 특수성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화라는 주술적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간지럼을 태워 웃게 만들고, 그 웃음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외국의 신화와 비교된다-, 그리고 이미 저질러진 죄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요된 웃음’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차별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이 사회적 죄를 신성적 죄로 치환하여 처벌한다는 것과 상동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에는 웃음의 경계적, 생리적, 마법적 기능이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 죄를 신성적 범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위상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웃음은 울음처럼 신체를 열리게 하는 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열림은 반드시 외부적 상황이나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외부의 아무런 상황적 자극이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웃음이나 울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 그것이 웃음이나 울음의 현상적 원인인 것이다. 그런데 신화에 의하면, 웃음의 경우 이러한 생리적 기능 외에도 특별한 기능과 결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점을 한국의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에 보이는 ‘웃음웃음꽃’ 신화소를 통해 검토하고, 무속의례 및 전설과 민담과의 대비를 통해 그 신화적 기능과

위상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학자들의 웃음이론을 먼저 검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웃음이론으로는 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서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신화에서의 웃음에 대한 검토는 신화 또는 구비문학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논의여야 한다. 그래야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웃을꽃' 신화소의 기능과 그 위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논의로는 레비-스트로스와 블라지미르 프로프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화에서의 웃음은 '인간/비인간', '삶/죽음' 등을 구분 짓는 경계적(境界的) 기능, '참을 수 있는 것(참기 쉬운 것)/참을 수 없는 것(또는 참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리적(生理的) 조절 기능, '삶(또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마법적(魔法的) 기능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를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웃을꽃' 신화소에 견주면, 비록 한국의 무속신화에 웃음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웃음의 기능이 세계신화의 보편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은 삶/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경계적 기능, 참음/참지 못함이라는 생리적 조절 기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국의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에서 파악되는 이러한 웃음의 기능이 어떠한 신화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전설 및 민담과의 대비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모두 비일상적 영역의 비일상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웃음'은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이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강요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공본풀이>에서의 이러한 차별점은 한국의 전설 및 민담과의 대비에서 파악되는 것일 뿐, 세계신화의 맥락에서 보면 보편적인 양상에 불과하다. 다만 주화라는 주술적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데,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이 사회적 죄를 신성적 죄로 치환하여 처벌한다는 것과 상동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공본풀이>에는 웃음의 경계적, 생리적, 마법적 기능이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죄를 신성적 범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그것을  
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K C I

## 참고문헌

-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담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김복순, 『바보 이야기와 웃음: 바보 민담의 웃음시학』,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유정탄생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한국의 웃음문화』, 소명출판, 2008.
- 김윤옥, 「웃음론」, 『연극학보』 제8집,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1975.
- 류종영,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웃음이론」, 『독일어문학』 제23집, 한국독일어학회, 2003.
- 류종렬, 「웃음거리: 웃음의 미학-웃음거리(le comique)의 발생과 의미-」, 『시대와 철학』 제17권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료, 2005.
-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서대석, 『한·중 소화의 비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강엽, 『바보이야기, 그 웃음의 참뜻』, 평민사, 1998.
- 이강엽, 『바보설화의 웃음과 의미 탐색』, 박이정, 2013.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 편II』 2, 평민사, 1988.
-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정재민, 『군대유머, 그 유쾌한 웃음과 시선』, 박문사, 2011.
- 황인덕, 『한국기독교사론』, 태학사, 1999.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레비-스트로스, 임봉길 옮김, 『신화학 1: 낯것과 익힌 것』, 한길사, 2005.
- 브루스 링컨,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옮김,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 블라지미르 브로빈,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 2010.
- 앙리 베르그손, 김진성 옮김, 『웃음: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중판;1993.
- Rodlyn Poignant, *Oceanic Mythology*, Hamlyn, 1967.
- Victoria Reifler Bricker, *Ritual Humor in Highland Chiap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3.

## 국문초록

###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 <이공본풀이>의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중심으로 -

최원오

웃음은 인간의 생리적 반응이다. 그런데 신화에 의하면 이러한 생리적 기능 외에도 특별한 기능과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점을 한국의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에 보이는 ‘웃음웃을꽃’ 신화소를 통해 검토하고, 무속의례 및 전설과 민담과의 대비를 통해 그 신화적 기능과 위상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학자들의 웃음이론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들의 웃음이론으로는 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을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화에서의 웃음에 대한 검토는 신화 또는 구비문학의 자료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웃을꽃’ 신화소의 기능과 그 위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논의로는 레비-스트로스와 블라지미르 프로프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화에서의 웃음은 ‘인간/비인간’, ‘삶/죽음’ 등을 구분 짓는 경계적(境界的) 기능, ‘참을 수 있는 것(참기 쉬운 것)/참을 수 없는 것(또는 참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리적(生理的) 조절 기능, ‘삶(또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마법적(魔法的) 기능과 결부되어 있다. 이들의 논의를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웃을꽃’ 신화소에 견줘보면, 비록 한국의 무속신화에 웃음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웃음의 기능이 세계신화의 보편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은 삶/죽음의 경계를 가르는 경계적 기능, 참음/참지 못함이라는 생리적 조절 기능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전설 및 민담과의 대비를



통해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이 신화적으로 어떠한 위상에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모두 비일상적 영역의 비일상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웃음'은 결국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이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강요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별적이다. 이러한 차별점은 세계신화의 맥락에서 보자면 보편적인 양상에 불과한데, 주화리는 주술적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은 차별적이다. 이것은 <이공본풀이>에서의 웃음이 사회적 죄를 신성적 죄로 치환하여 처벌한다는 것과 상동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공본풀이>에는 웃음의 경계적, 생리적, 마법적 기능이 단순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죄를 신성적 범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제어 : 이공본풀이, 신화소, 웃음, 웃음웃을꽃, 주화(呪花)

**Abstract**

The Functions and Status of ‘Laughter’ in Korea  
Shamanic Myths

- Focusing on mytheme ‘Laughing Flower’ in  
〈Yigongbonpuri〉 -

Choi, Won-oh

Laughter is a human physiological response. According to what is found in mythology, however, it is associated with special functions other than the physiological function. This study examined this fact through mytheme ‘Laughing Flower’ found in Korean shamanic myth 〈Yigongbonpuri〉, and discussed the mythological functions and status of laughter through comparison with shamanic rituals, traditional stories, and folk tales. For these works, Western scholars’ theories of laughter were first reviewed. It is because their laughter theories cannot explain the functions of laughter in myths. What is more, study of laughter in myths needs to use materials of mythological or oral literature. Only then, we can grasp the functions and status of mytheme ‘Laughing Flower’ in 〈Yigongbonpuri〉 more specifically or universally. What we may refer to in this discussion are the works of Levi-Strauss and Vladimir Propp. According to their studies, ‘laughter’ in myths play the function of border distinguishing between human and non-human, life and death, etc., the function of physiological regulation of the tolerable/the intolerable, and the function of magic invoking life/invoking death. When their discussions are compared with

mytheme 'Laughing Flower' in <Yigongbonpuri>, although laughter is nuanced delicately in Korean shamanic myths, the functions of the laughter can be understood in the universal context of world mythology. That is, it is shown that 'laughter' in <Yigongbonpuri> is indirectly connected to the border function dividing life and death, and the physiological regulation function of tolerance/non-toleranc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ythological status of laughter in <Yigongbonpuri>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n traditional stories and folk ta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y have it in common that 'laughter' of humans for an unusual being in an unusual realm becomes a cause of death at last. However, laughter in <Yigongbonpuri>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is not voluntary but forced. In the context of world mythology, this differentiation is merely a universal pattern, but the use of a coin as a magical medium is discriminatory. This means that laughter in <Yigongbonpuri> is in a homological relation with the conversion of a social crime into a sacred sin and punishment of the sin. In other words, <Yigongbonpuri> does not simply apply the border, physiological, and magical functions of laughter, but uses laughter actively in introducing a social crime into a sacred realm and purifying it.

Key words : Laughter, <Yigongbonpuri>, Mytheme, Flower, Laughing Flower, Shamanic Myth

논문 받은 날 : 2014년 10월 31일  
심사 기간 : 2014년 11월 15일~12월 2일  
신기로 한 날 : 2014년 12월 2일